

목요[†]솔틴 부모기도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 세우기"

- 대상: 다음세대 부모
- 일시: 3.13(목) ~ 4.24(목) 오전10:30
- 장소: 센터 5층 솔틴홀



기도문 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 하루 삶이 분주하여 자녀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관점으로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기준을 두지 못하고, 부모인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부모된 저의 신앙과 자녀 양육관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자녀 양육을 맡은 청지기로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삶과 사랑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② 부모 안의 성공 중심 교육관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나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알맞은 부르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의 삶에 나의 욕심을 투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개인의 성공이 가족 공동체의 성공처럼 비춰질 때가 많은 사회 속에 살면서 저 또한 아이의 삶을 우리 가족의 성공으로 투영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부족하면 부끄러워 하기도 했고, 더 잘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자녀의 성공과 입신양명을 부모 존재의 성공으로 연결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을 구하며, 자녀의 삶의 위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③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가정이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말이 아닌 무릎으로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신앙 안에 든든히 서고, 하나가 되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④ 온유한 부모 되게 하소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따뜻한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편을 끼쳤지만, 하나님은 친절과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수동적인 사랑을 넘어서 때론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늘 친절과 선을 베푸는 능동적인 행동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거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친절하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 마음이 일그러진 자녀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며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부모가 되어 그들로 하나님의 더 넓고 크신 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⑤ 가정 속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가정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두 선하며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도 허락해 주셔서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존재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활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 속에 서로를 해치고 상처 주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자녀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이 존재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갈등으로 지쳐버린 부모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어서 건강한 믿음이 가정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⑥ 가정 안에 신앙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곳곳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된 저희가 가정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느끼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화를 만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이 신앙의 문화를 만들게 하옵소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며, 부모가 자녀의 삶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곳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상징들을 놓아서 자녀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잘 정착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모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깨뜨려 주시고, 사랑을 위협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